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3)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8



CBAM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WWW.CENTERFORB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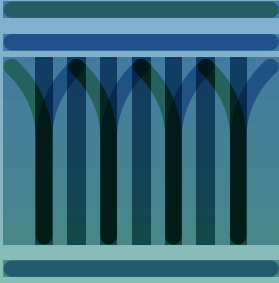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8

TABLE OF CONTENTS

- i. 공동대표 인사
- ii. 2018년 CBAM 사역 정리
- iii. 2019년 사역 우선순위
- iv. 재정 정보
2018년 정산
2019년 예산
- v. 이사회 의논 Agenda

Center for BAM Management Team작성
작성일자: 2018년 12월 17일
TCFbam@gmail.com

WHO WE ARE AND WHAT WE DO



JBS

JOSHUA
BUSINESS
SCHOOL

JBS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지 배우는
12주간의 온라인
학교입니다.



C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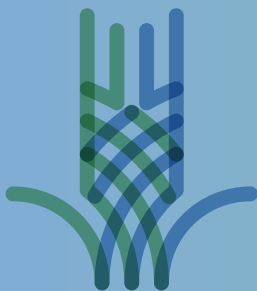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은 크리스천
비즈니스 자원을 복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지역의 BAM 회사들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입니다.



CBAM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JES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JES 는 BAM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동역하는 BAMer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복음의 영향력이 필요한 문화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CBAM 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풍성함을 발견한 사람들
비즈니스를 통해 맺어진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받은 은사를 열방을 섬기기 위해 함께 공유하고 네트워크하는 사람들



I. CBAM 공동대표 인사

BAM(Business as Mission)의 비전을 처음 나누고 이 운동에 동참해 온 지난 10년 동안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사역의 여정임과 동시에 선교의 하나님과 그분의 선교를 알아가는 참으로 복된 배움과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새로운 손길과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한 해도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렸던 특별한 한 해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올해 저희 CBAM의 모임과 사역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 주신 부르심과 방향성은 이 어두운 비즈니스 제국 속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에클레시아” 즉 지역교회들의 중요성과 이 지역교회들을 돕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서의 CBAM이었으며, 이 사역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올해 3월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열린 CBAM 스텝 미팅에서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힘과 부를 추구하는 거대한 제국의 어두움과 질서 속에 존재하는 작은 교회이며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할 지라도 주님 앞에 사랑과 신실함을 지켜갈 때에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CBAM과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선교적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JBS (Joshua Business School)는 세상 속 제자도 라는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남가주, 오레곤의 포틀랜드, 뉴저지, 메릴랜드, 캐나다의 켈거리 등 북미의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을 계속해서 돕게 되었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열린 JES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도 이 지역에 오랜 세월을 가난과 억압 속에 신음하는 현지 크리스찬 교회들이 소망을 갖고 연합하여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돕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CRN(Christian Resource Networks)도 올해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도시와 지역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연결하는 돕고자 하며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열린 CBAM 스텝 미팅에서 바로 우리가 어두운 제국 속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이며 비록 작고 연약할 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과 신실함을 지켜갈 때에 이것이 선교의 문을 열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올해 11월 버지니아 열린문 교회에서 “비즈니스 세상 속 선교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열린 CBAM 컨퍼런스에서는 비즈니스 제국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변화된 선교 환경 속에서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도록 초대하고 격려하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의
신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음
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
이사야 61:3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지역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 지역교회들에게 BAM의 비전을 나누고 선교적인 삶을 소개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6월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1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그리고 9월과 12월에는 미국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 지역에서 다양한 대상, 다양한 형태의 BAM 컨퍼런스를 주체하거나 세미나를 지역교회 공동체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특별히 11월 “비즈니스 세상 속 선교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버지니아의 열린문 교회에서 열린 CBAM 컨퍼런스에는 약 100여명의 참가자들과 7개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즈니스 제국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변화된 선교 환경 속에서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도록 초대하고 격려하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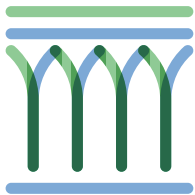
날이 갈수록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비즈니스의 제국의 어두움과 지배력 속에서도 오히려 이 어두움을 밝히고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선교적 교회공동체들을 세우고 돕는 저희들의 사역은 2019년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을 저희 가운데 시작하셨고 이루어 오신 주님께서도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함께 돕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동역이 새해에도 계속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16일 서명구, 조샘 드림



II. 2018년 CBAM 사역정리

CBAM의 사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Joshua Business School (JBS)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현대의 도시, 비즈니스 문화 가운데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Jubilee Entrepreneur School (JES)는 복음이 필요한 문화권에서 비즈니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1주일간 열리는 오프라인 창업학교입니다.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은 타문화권에서 운영하는 BAM 기업을 재능과 자원을 가진 분들과 연결하여 협력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킹 사역입니다. 2017년은 CBAM 전체의 정체성과 공동체성 속에서 각 팀들이 자신들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찾아가고 사역을 더욱 깊이 확장하고 뿌리내려간 시기이기도 합니다.



Joshua
Business
School
(JBS)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JES)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



JBS

JOSHUA BUSINESS SCHOOL

올 한해 JBS에는, 작년에 이어 교회 차원에서 JBS를 진행하는 스쿼드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LA 주님의 빛 교회, 깔거리 한우리교회 등 기존 JBS를 진행하던 교회에서 계속하여 새로운 스쿼드가 만들어져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뉴저지 초대교회, 포틀랜드 빌리지 교회, 에덴교회, 위니펙 중앙교회 등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JBS에 대한 뜨거운 반응과 삶의 변화에 대한 풍성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미서부 오레곤 주에서는 포틀랜드 빌리지 교회와 에덴교회를 주축으로 열린 교회연합회 선교대회에서 기존 JBS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 삶의 자리의 선교'에 대해 나누며, 지역교회에서의 '일상 속 제자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해는 기존에 JBS를 진행하던 교회들의 프로그램 운영이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JBS를 교회내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교회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 기간의 개편과, 수강과 나눔을 돕기 위한 교재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벨엘교회에서 교회사정에 맞게 개편되어 진행된 JBS가 좋은 case study가 될 것으로 보여 feedback을 적극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해들과는 달리 JBS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큰 개편은 없었으며, JBS를 CBAM을 통해 직접 수강하는 인원은 약 70여명이었고, 지역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JBS 스쿼드들을 통한 수강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교회 밖' 모임이 아닌 '교회 내' JBS 모임 활성화에 대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에 감사하며, 이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 JBS의 운영 면에서도 교회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JBS 자체 수강생들도 더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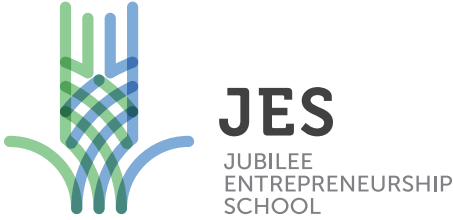


에덴교회 JBS 1기 스쿼드의 모습. 두명으로 시작하여 한명을 더 모으기 위해 알린 지 2주만에 총 13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JBS를 진행하게 됨.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의
신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음
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
이사야 61:3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JES는 선교지에서 진행되는 1주일간의 BAM 창업 학교입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김진수, 유현석, 이민동, 장영희, 박한별 선교사, 이이삭 선교사, 6명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올해 부터는 오규원 이사가 JES팀에 스텝으로 함께 섬기게 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JES를 더욱 발전시켜 갈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파키스탄 라호르의 Forman Christian College (FCC)에서 6월 13-6월 16일까지 일곱번째 JES가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컨퍼런스에 두 비숍을 비롯한 12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였고, 이어지는 이들의 JES에는 강사 포함 92명이 참여였습니다. 강의 들은 “Dream Team”이라고 할 정도로 조화롭게 잘 진행되었고, 너무 일정이 짧아서 염려했지만 32명이 JES Canvas(창업계획)작업을 마치고 제출하였으며 마지막에 선정된 8개의 비즈니스 플랜도 정말 수준 높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수료증을 주고 감사하는 시간은 거의 축제 분위기 였으며 분명히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별받고 핍박받은 이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JES는 작년 부터 추진되어온 “JES 2.0”이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BAM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동역하는 BAMer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복음의 영향력이 필요한 문화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명과 기본 방향 속에서 선교지 현지의 BAM공동체나 코디네이터가 프로그램의 기간, 장소, 핵심 교육내용의 결정을 주도하고, JES에서는 이에 맞추어서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현지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현지 모임을 돕고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로 선교지의 선교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6월 13일은 서울에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JES 졸업생을 대상으로 Mini-JES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JES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며 7월에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작년 JES를 참여했던 학생들중에 이미 창업을 한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견고하게 기초한 보다 심화된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으로 네팔의 카투만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의 나무
신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을
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
이사야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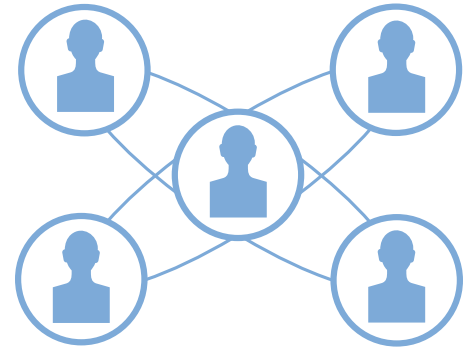
2018년에는 파키스탄 라호르 Forman Christian College (FCC)에서 차별받고 핍박받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CRN은 전망과 후방을 연결하여 BAM 기업들을 돕는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CRN 팀은 현재 한달에 한번씩 온라인 회의를 하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통적 CRN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이지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CRN에 등록된 BAM 회사가 CRN 프로젝트를 요청하면, 적절한 자원 제공자를 연결시켜 드리고 제안해 주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역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BAMer들을 연결하여 그들의 선교적 삶을 돕는 일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동안은 지난 CRN 사역을 리뷰하고 CRN 사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Local Community Development를 CRN 사역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JBS Network라는 이름으로 JBS를 수강했거나 수강중인 사람들의 지역 네트워크 혹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진행해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킹을 통해 현실에서 겪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JBS에서 배운 내용이 삶에서 해석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9년에는 그 파일럿 프로젝트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JBS Network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포틀랜드에서 두 지역 교회에서 세개의 JBS 스쿼드가 마쳤고, 그 두 교회가 연합하여 2019년 부터 JBS Network를 시작하기로 논의 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들이나 CBAM의 다양한 리소스가 온라인을 통해 쉐어 될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킹을 함께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CRN
CHRISTIAN
RESOURCE
NETWORK



<http://www.centerforbam.com/news/>



JBS Network는 무엇인가요?

CBAM의 세가지 주요 사역 중에 하나인 JBS (Joshua Business School)를 수강했거나 수강중인 사람들의 지역 네트워크 혹은 세상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지역 네트워크 입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
신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음
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
이사야 61:3





III. 2019년 사역 우선 순위

저희가 올해 발간했던 2017 Annual Report 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전략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비즈니스 세상 속 제자의 삶을 사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고 지원
- CBAM 프로그램의 상황화와 다각화
- 내부 역량 강화

이 세가지 우선순위 가운데 첫번째 우선순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가장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작년 이어서 ‘세상 속 제자도’라는 주제로 새롭게 개편된 JBS와 함께 도시 속의 지역 교회를 돕는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주님의 빛 교회와 켈거리의 한우리 교회는 JBS가 교회의 공식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되어 몇 기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훈련이 진행 중이며, 포틀랜드의 빌리지 교회와 에덴 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등에서도 JBS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며 검토 중입니다. 무엇보다 각 도시마다 제자들의 선교적 공동체를 보다 전략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5월에는 캘리포니아 남가주 베델교회에서 약 200여명의 성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즈니스 세계의 선교적 삶으로서의 BAM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지원하였으며, 6월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의 젊은 직장인들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민족화 되는 도시 속 직장인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소개하고 초대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오레곤 포트랜드에 있었던 선교대회에서 변화하는 선교환경과 이 곳에서의 선교적인 삶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로 포틀랜드의 에덴교회는 내년 부터 온 교회가 세상속 제자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교적인 삶을 훈련할 계획이며 이를 돕기 위하여 12월에 그 교회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11월 북부 버지니아와 워싱턴 디씨 지역의 직장인들과 지역교회들에게 세상 속 제자도와 BAM의 비전을 나누고 제자들의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버지니아 열린문 교회에서 진행된 CBAM 컨퍼런스에는 각 지역에서 모인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해주었고, 특별히 선교적 교회를 고민하는 7개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가 걸어온 사역의 여정과 프로그램들을 나누며 동역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성도들과 지역교회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동역은 매우 고무적인 방향이며 2019년도의 사역 방향에 중요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번째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CBAM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인 JBS를 어떻게 지역교회의 상황에 맞게 연결 시킬 것인가를 크게 고민하며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예를 들어 JBS가 제자들의 선교적인 삶을 교육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임을 확인 하였지만, JBS가 지역 교회에 들어가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JBS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전 혹은 사후 follow-up 교육 과정이 필요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부터는 뉴저지 초대교회, 볼티모어의 벨엘교회, 그리고 오레곤의 에덴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교회 상황에 적합한 세상 속 제자 훈련 프로그램과 모임을 개발하고 준비, 실행 해 왔으며 이는 내년에도 계속 심도 있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JES도 선교지 현지의 필요를 보다 잘 섬기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현지 사역자들 혹은 다른 단체와의 긴밀한 동역이 필요함을 느끼고 변화를 시도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JES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처음으로 선교사가 아닌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였으며 매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기존의 교육 내용의 변경과 확장,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우선 순위는 CBAM의 재정이나 회계 시스템이 다소 안정화 되고 체계화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3월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있었던 스텝 미팅에서 그동안 저희의 조직과 활동을 돌아보며 그동안 비전과 순수한 동기, 그리고 깊은 동역 관계로 함께 일해 온 장점 뿐 아니라, 앞으로 다음 단계의 단체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점과 한계들도 심도 있게 지적되고 논의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좀더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전체 방향성을 위하여 각 프로그램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를 공감하였습니다. 이 세가지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하여 다음의 세가지 우선순위로 만들어보았습니다.

1. 지역교회들의 선교적 변화와 선교적 삶의 훈련을 지원

- 변화되는 선교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선교적인 삶에 대한 지역교회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 남가주 베델교회의 경우와 같이 관심이 있는 지역교회들의 선교적 관점의 변화를 지원하고 BAM의 비전을 심어주는 컨퍼런스나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을 돕는 역할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준비하고 필요가 요청이 있을 때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와 동시에 지역교회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연결 할 필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상 속 제자도” 혹은 “삶터 사역 훈련 프로그램”의 형태로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교회의 형편에 맞게 저희들이 개발한 JBS의 내용을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재 편성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개발과 보급은 내년도 CBAM 사역의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 또한 CBAM과 지역교회들과의 협력관계 개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가 지역교회들과의 건강한 지원/후원 관계를 맺고 확장해 갈 뿐 아니라, 지역교회들 간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장을 마련하고 돕는 역할도 감당하고자 합니다.

2. 도시 속 제자들의 커뮤니티 개발과 강화

- 지역교회의 선교적인 삶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 수 밖에 없어서 도시와 직장 마다 존재하는 독특한 도전과 제자도의 필요성은 채워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 속 직장인들을 깨우고 이들의 독특한 필요를 채우고 훈련하여 선교적 제자들과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이들이 도시와 직장 마다 중요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섬기는 지역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깨우고 훈련하는데 여전히 JBS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해 왔습니다. 바로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JBS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훈련하여 이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저희들이 내년에 추구하고자 하는 두번째 전략적 방향성입니다.

- 특별히 이 사역의 주류를 이룰 3-40대의 직장인들이 점차로 오프라인 미팅이나 컨퍼런스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결되고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동시에 지역 마다 대상 마다 특화된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행사들을 통하여 JBS가 도시 속 직장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관심자들이 참여하여 훈련받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JBS 졸업생들도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참여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과 만남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여기 이곳에서 땅끝까지: 선교의 전후방을 연결

전통적으로 해외에서 미전도종족을 선교하는 흐름이 선교의 주류를 이루어 왔고 최근에는 이곳 도시 속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두 흐름이 마치 전혀 다른 선교운동 처럼 여겨지고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CBAM은 시작 부터 이 두 흐름이 결코 분리되지 않은 같은 선교이며 오히려 서로가 연결되어야 할 필요를 인식하였고 도시 속의 선교적인 삶을 훈련하는 JBS와 전방개척 선교를 돕는 JES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CRN의 세가지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이러한 통합적인 선교의 비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의 연결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미래 CBAM의 주요 사역 방향으로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JBS를 통하여 도시속 선교 공동체를 일으키고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이 곳 도시 속에서 훈련 받은 성도들이 JES와 같은 전방 선교와 연결되어 협력하는 길을 찾고 열어가는데 힘쓰고자 하며 이를 위해 CRN 사역을 보다 확장하고 다른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내부 역량 강화 - 이사회의 활성화

- CBAM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8년에 가장 집중해야 할 우선 순위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CBAM의 이사회의 역할이 CBAM의 비전과 사역에 함께하며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함께 공유한 비전을 중심으로 CBAM 전체의 방향성을 정하고 전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가도록 돕는 것 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1년에 한번 온라인으로 연말에 결산을 위한 이사회 뿐 아니라, 적어도 일년에 1번은 오프라인으로 만나 전략 이사회를 갖고 저희 단체 전체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가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3월 스텝미팅과 함께).
- 또한 실행이사들(board executives)을 실무 대표자들과 분리시키고 자체의 조직 (이사장, 서기, 회계 등)을 구성하여 그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분들을 CBAM의 모든 행사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함께 사역해 가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2018년의 총 수입과 지출은 각각 \$21,497.65 과 \$14,682.25 으로 작년도 수입과 지출이었던 \$50,851.23 과 \$47,060.9원저하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CBAM의 두 주력 프로그램인 JBS와 JES의 비용이 특히 현지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JES의 비용이 7배 정도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양 교육프로그램의 변화와 확장을 생각할 때 올해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도 지난 한해에 이어 꾸준히 연결되고 강화되리라 봅니다.

지난 한해도 여러분들과의 동역이 있었기에 이상의 사역들이 가능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동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IV. 재정정보고

2018년 재정정보고 (2018.1.1~2018.12.31)

수입/지출	Team	사역내용	금액 (USD)	합
수입	CBAM	정기후원	\$10,900.00	\$11,005.00
		후원	\$105.00	
	JBS	등록비	\$1,492.65	\$1,492.65
		후원	\$0.00	
	JES	등록비	\$0.00	\$9,000.00
		후원	\$9,000.00	
	CRN	CRN Project	\$0.00	\$0.00
총수입			\$21,497.65	\$21,497.65
지출	CBAM	연례 스텝 미팅	\$4,046.64	\$10,128.08
		연례 컨퍼런스 비용	\$5,106.00	
		웹구축비 및 행정	\$156.99	
		IBA 이사회비	\$278.45	
		Accounting 시스템	\$540.00	
	JBS	JBS 웹 운영비	\$20.17	\$20.17
		사무 및 행정	-	
	JES	강사 및 스텝 지원비	\$0.00	\$4,200.00
		숙박비용	\$0.00	
		물품/장비	\$296.65	
		음식	\$3,903.35	
	CRN	CRN Project	\$334.00	\$334.00
	총지출			\$14,682.25

Note: 저희들이 2018년 1월 1일 시작할 때의 현금 잔고는 \$42,204.85 였으며, 12월 31일의 잔고는 \$41,216.36로 예상됩니다.

2019년 예산 (2019.1.1~2019.12.31)

수입/지출	Team	사역내용	금액 (USD)	합
수입	CBAM	정기후원	\$15,000.00	\$15,000.00
	JBS	등록비	\$4,000.00	\$5,000.00
		후원	\$1,000.00	
	JES	등록비	\$2,000.00	\$10,000.00
		후원	\$9,000.00	
	CRN	후원	\$3000.00	\$3000.00
총수입			\$33,000.00	\$33,000.00
지출	CBAM	스텝 미팅	\$5,000.00	\$15,000.00
		CBAM 컨퍼런스 비용	\$8,000.00	
		웹구축비 및 행정	\$2000.00	
	JBS	JBS연간 스텝미팅	\$2,500.00	\$5,000.00
		교육 개발 및 운영	\$2,000.00	
		인력 지원	\$500.00	
	JES	강사 및 스텝 지원비	\$1000.00	\$10,000.00
		숙박비용	\$5,000.00	
		음식	\$3,000.00	
	CRN	커뮤니티 development	\$3,000.00	\$3000.00
총지출			\$33,000.00	\$33,000.00

Note: 전체 예산을 올해 예산에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또한, CBAM 전체 차원에서는 올해의 핵심 사역, 즉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재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7%를 차지함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8



CBAM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WWW.CENTERFORBAM.COM